

棟現存、而朝陽門三字楣額兵火中遺失無傳」

② 寺址에 現存하는 幢竿支柱에서 시내를 건너 東南쪽으로 있는 石佛立像이나 그 彫刻은 보잘것 없고 住民의 迷信의 行爲에 依하여 石佛에 짐장을 의뢰고 짐도름이를 입혔다.

③ 「집대」는 「뫼대」를 말한 것이니 風水說의 行舟形 地形에는 「뫼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幢竿을 後世에 「집대」로 보는 것이다. 全羅南道羅州邑東門外石幢竿等을 「집대」라고 부르는 것과 相通된다.

橫城 上洞里的 塔像

——橫城佛蹟 其二——

鄭 永 鎬

江原道 橫城郡 公根面 上洞里 上蒼國民學校에서 約1km되는 北쪽 골짜기 畵中에 石佛과 石塔이 遺存하며 이곳에서 約3km되는 於仁洞後便山腹岩窟內에 石佛一軀가 있어 一九六三年夏季에 調査하였다.

一、石造如來坐像

花崗石材로 座臺위에 結跏趺座하고 觸地降魔印을 結한 如來像인데 下臺는 雜草石에 묻혀서 調査가 不可能하였다.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眉間에 白毫가 있으며 兩眉眼과 鼻部 口唇等이 整齊되었다. 兩耳에 磨損이 있으나 相好는 圓滿하며 口唇에 微笑를 띄어 慈悲스럽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었는데 그 流麗한 衣文과 左膝上에 올려놓은 右足의 寫實的인 彫法에 注目되었다. 座臺는 上臺가 圓形이며 側面은 複瓣仰蓮으로 裝飾되었는데 그 蓮瓣內는 子房이 있는 花瓣이 彫飾되었으며 下面에는 二段의 刻出되었다. 竿石은 八角인데 隅柱는 없으나 各面마다 長形의 眼象이 銳利하게 陰刻되었다. 坐像의 背面에는 徑四cm(深三·五cm)의 圓孔이 있어 本來는 光背를 具備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隣近雜

石틀에서 火焰文과 二條線이 彫刻된 光背石片을 調査할 수 있어 이것

이 바로 佛像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本洞의 李相俊氏談이라하며 洞民들이 口傳) 이 位置의 前方畵地下에는 長大石이 깔려있음을 耕作時에 確認했다

고 하는데 아직도 附近에는 礎石이 있음으로 보아 佛像의 現位置는 原位置가 아닌가 짐작된다. 實測値는 (cm)像高 一三六肩

幅六五 膝高九九 頭高四六 胸幅四〇 膝高三六 上臺徑九六 竿石高三一 上臺厚二二 竿石一石幅二四·五이다. 佛像의 相好와 衣文 座臺等의 手法으로 보아 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現在 頭部는 떨어져 있어 筆者가 調査時에 올려놓았는데 完全히 補強치 못한 것이 遺憾스럽다. 이 坐像에 對한 記錄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一九頁에 보이며 여기에도 頭部가 折損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앞으로 保存策이 講究되었으면 좋겠다.

二、石塔



一石佛 바로 옆에 倒置된채 原形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上基甲石만露
出되고 그 以下는 埋沒되어 調査할 法이 없었다. 屋蓋三石과 屋身二
石을 調査할 수 있었는데 椽柱一柱가 刻出된 基壇部面石이 있음과
上甲石을 보아 이塔은 二層基壇임을 알 수 있다. 上甲石上面에는 佛龕과
角形의 받침이 있으며 塔身에는 兩隅柱가 있다. 各屋蓋의 받침은 一、
二層은 四段씩이고 三層이 三段이며 四隅의 轉角에는 風磬을 달았던
痕跡으로 圓孔이 있다. 落水面은 急하지 않으며 上面에는 二段의 받
침이 있어 그 위 身石을 받고 있다. 實測値는(cm)……

上甲石 一邊長 一三三 一層塔身 高五〇

厚七·五 " 幅五一·五

二層塔身 高一五·五 一層塔身長八九

" 幅四八 二 " 七六

三層塔身長六二 上基面石 高五七·五 幅七六이다. 이塔에 關한 記錄
은 아직 보지 못하였는데 洞民의 말에 依하면 日帝時 畚中에서 出土되
어 이곳 佛像 옆에 塔材를 收拾해 놓은 것이라 한다. 이 石塔의 年代는
屋蓋나 基壇石手法으로 보아 麗初로 推定된다.

三、岩窟과 石佛

於仁洞部落에서 約一km쯤 뒷산을 올라가면 山腹에 南向하여 自然岩
窟이 있고 그 안에 坐像一軀를 奉安하였다. 記錄에 依하면 十三軀(註)
의 石佛이 있었다고 하는데 現在는 一軀뿐으로 그것도 他處에서 移安
된 것이라 한다. 素髮로 頭部와 相好에는 黑白粉을 彩色했으며 折損
된 것을 「세멘트」로 補強한 것이다. 右肩偏袒의 法衣가 兩腕에 걸쳐 무
릎을 덮었으며 左手에는 持物이 있다. 胴體에는 全身에 黃色을 彩色하
였다. 衣文이나 各部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窟
入口에는 「窟岩寺」라는 墨書가 있으며 兩 옆은 돌담을 쌓고 中央에 木
材로 門을 架設하여 雜人出入을 禁止시키고 가끔 巫堂들이 모여 佛供
客들만을 맞는다고 한다. 窟內는 人工을 加한 곳도 있으며 佛壇은 없
는데 自然水가 湧出되어 筆者가 訪問한 三伏의 무더위에는 一盃二盃
가 藥水와도 같이 느껴졌다.

實測値는(cm)像 高五七 肩幅三三 膝高五一 胸幅一八 ※窟入口 高約三
m 窟內 高約七m 窟入口 幅約七m 窟內徑約八m.

〔註〕「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二九頁에 「於仁洞部落의 西北方約六町餘山
腹岩窟內에 있으며 座像인데 高約一尺乃至一尺五寸으로 十三體가 있
는中 三體는 頸部折損 二體는 胴體뿐이며 其外는 完全하다」라 있다.

南原 實相寺의 一建物址

崔 容 完

羅代에 유명한 證
覺大師에 依하여 다
스려진 實相寺 境內
에 木塔址로 생각되
는 一建物遺址를 찾
아볼 수 있었다.

지난해 七月 十三
日 서울大學校 尹張
燮先生과 延世大學
校 李慶會氏와 同行
하여 이곳에 이르렀
을 때 中門址의 東
南에 建物址를 發見
하고 調査하였다.
中央에는 一邊 약 五
一六尺의 正方形에
近似한 平石이 四隅
를 東西南北으로 하

